

## 2. 방글라데시 肥料工業

編輯者註 : 다음말은 Fertilizer International  
No. 109 July 1978 에서 발췌 번역한  
내용입니다.

방글라데시 = 生存을 위한 투쟁에서 승리하고 있는것인가 ?

낮은 生活水準을 조금이나마 向上시킨 희망마저 주기적으로 파괴하여 왔던 洪水와 太風 그리고 가뭄이 없었음으로, 방글라데시의 農業經濟에는 상당한 進展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制限된 土地利用可能面積에서의 食糧增産은 여전히 永久的인 問題로 남아 있으며, 이것은 방글라데시에 있어서 政治生命의 根本問題가 되고 있다. 土地利用은 방글라데시의 장래에 영향을 주는 가장 큰 要因이 될것이며, 慢性的으로 自國의 人口를 먹여살리지 못하는 방글라데시의 無能에 대한 잇따른 국제적인 調查研究들은 이나라가 취해야 할 方途에 관하여, 특히 역경이 많은 土地改革 問題에 관하여 근본적인 결론을 끄집어 냈다. 그러나 土地所有構造가 가까운 장래에 급격하게 變動될것 같지는 않은데, 그 이유는 방글라데시의 土地所有者는 대개 政治公務員이며, 大統領에 대한 그들의 지속적인 支持는 이나라의 政治的 安定을 위해 必要不可欠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政府의 政策은 磷酸質肥料과 加里質肥料에 상당한 補助금을 지급함으로써 窒素質肥料보다 그 使用을 장려해왔었다.

1977 / 78年度에, 農夫들에게 지급된 補助金率은 尿素에 43%, 重過石 ( triple superphosphate )에는 64%, 塩化加里 (Muriate of potash)에 61%였다. 70年代末까지는 補助金이 없어지게 될것이지만, 磷酸質肥料와 加里質肥料의 使用增大는 持續될 것으로 予想된다.

지난 2년동안 심각한 天災가 없었던것은 별문제로 하고. 방글라데시의 向上된 經濟狀態는 그 대부분이 肥料使用의 增加 덕분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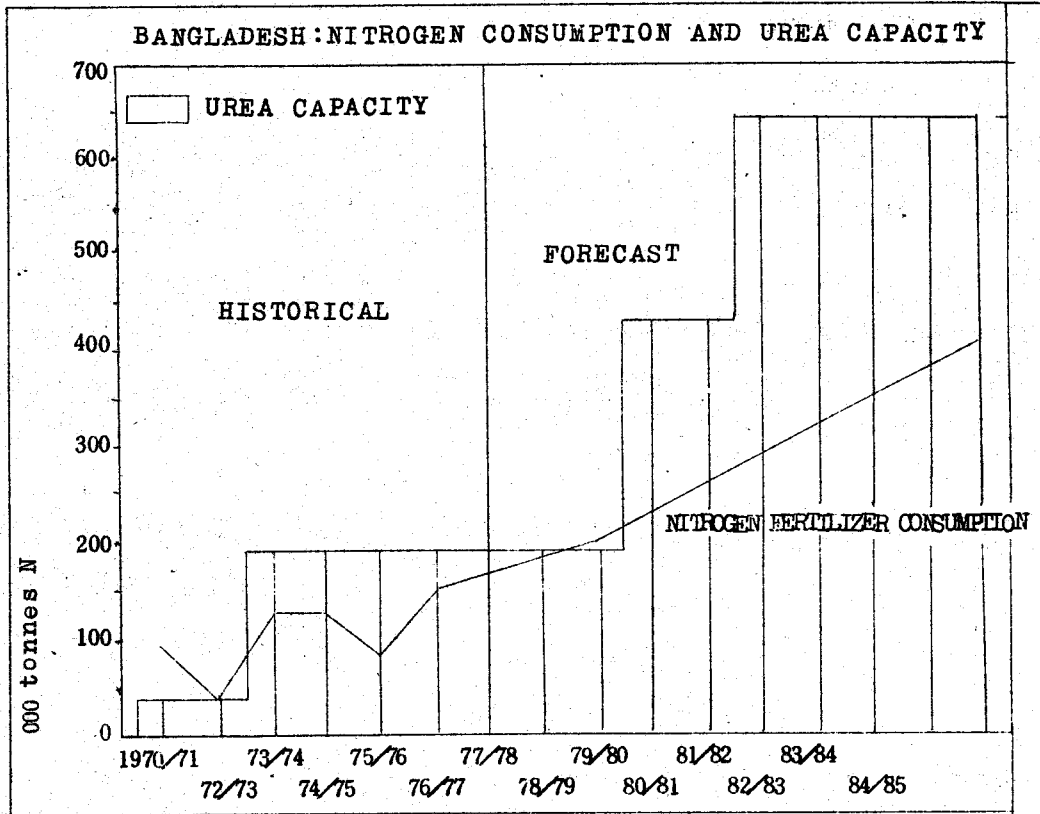
방글라데시의 肥料消費는 이나라가 세워진 이후 꾸준히 增加되어 왔으며, 일반적으로 收穫이 增加되어질수있는 가장 중요한 方法으로써 받아들여지고 있다.

1976 / 77年度の 肥料消費는 窒素質이 16.1萬 tonnes, 磷酸質이 7萬 tonnes, 加里質이 1.8萬 tonnes이었다. 少量의 硫安, 複合肥料와 등급이 낮은 磷酸質肥料들은 별문제이고, 尿素와 重過石 ( triple superphosphate )을 주로 使用하고있다. 農業生産을 확대하는데 있어 主要한 障礙는 土地가 不足하다는 점이며, 이나라의 土地全體의 약 65%가 이미 耕作되고 있으며, 이 비율은 事實上 總 耕作可能地를 나타내는 것이다. 耕作可能地가 限界에 달했을 뿐 아니라, 耕地面積의 半 以上을 이미 2毛作하고 있다. 방글라데시의 主要作物은 쌀, 황마와 茶인데, 全體肥料의 적어도 4 / 5가 쌀農事에 使用되고 있으며, 주로 尿素가 使用된다. 앞으로의 磷酸質肥料와 加里質肥料의 消費는 비록 낮지만 窒素質肥料보다 더

급격하게 촉진될 것이다. 現在 1.0:0.3:0.17인 成分比率은 앞으로 계속 窒素質 偏重現象을 나타낼 것으로 予想되며, 이것은 주로 밭농사가 우세하다는 점과 国内尿素施設의 확장에 기인하는 것이다. 窒素質肥料의 消費에 커다란 영향을 주는 다른 要因은 最近 60萬ha이상의 黃麻밭을 새로운 品種으로 耕作하려는 計劃을 밀고나가려 하는 決定과 近代의 集約的인 耕作方法을 확대하여 使用하려는 決定에 있는것이다. 이 政策의 目的은 더좁은 面積에서 收穫高를 예년과 같은 700萬 bales로 간결같이 유지할수 있게하기 위해, 收穫을 增大시키는데 있다. 이것으로인해, 現在의 黃麻耕作地를 食糧生産을 위해 돌릴수 있게되며, 방글라데시의 곡물부족량이 年間 100萬 tonnes 이상 減少될수 있을것이다.

\* 1980年代에 시작될 尿素輸出

오늘날 방글라데시는 尿素와 重過石 (triple superphosphate) 製造施設을 갖추고 있다. Ghorashal과 Fenchugani에 있는 尿素單位工場들에서 生産되는 방글라데시의 尿素生産能力은 19.1萬 t.p.a.N이다. 그러나 그 單位工場들은 시중일관 生産능력 活用水準을 매우 낮게 달성해 왔기 때문에 - 1976 / 77年度에는 50% - 大規模의 輸入이 불가피했었다. 輸入은 대개 원조에 의해 이루어졌었다. 그러나 国内産 天然가스를 活用하기 위한 2개의 대규모적인 尿素工場設計가 計劃되고있다. 첫번째것은 1979년에 Ashuganj에서稼動될 予定이며, 두번째것은 1980年代初에 Chittagong



에서稼動될 것이다. 이 두개의 工場이稼動되면 방글라데시의 尿素 生産能力은 60萬 t.p.a.N 이상으로 팽창될 것이다.

1976/77年度의 尿素消費量이 16.2萬 tonnes N이 됨으로써, 또 1985/86년에는 약 40萬 t.p.a로 (年間 生産能力) 予想되기 때문에, 방글라데시는 1980年代에 尿素를 自給自足할수있게 될 것이며, 輸出할수있는 상당한 剩餘量을 갖게될 것이다.

磷酸質肥料에 있어서는, chittagong에 있는 重過石 (triple superphosphate) 工場들이 生産面에서 問題가 있었던 關係로 지

남 2年동안 国内需要의 40%이하만을 供給할수 있었을 뿐이었다. 비록 施設의 확장이 과거 오랫동안 고려되어오긴 했지만, 輸入 燐 鉍과 輸入硫黃을 使用하는 Chittagong TSP의 生産原価는 매우 높으며, 輸入 TSP價格의 2배로 推定되고 있다.

資料

### 國際肥料價格動向

編輯者註：다음 資料는 Fertilizer International No. 111, September, 1978 에서 발췌한 것입니다.